

## 키조개, *Atrina pectinata*의 자연채묘연구

(Study on the natural spat collection of the pen shell, *Atrina pectinata*)

손팔원 · 하동수\*\* · 이창훈\* · 장대수\* · 김대권\*\*

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

\*\*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

\*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

1995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2년간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어장 및 전라남도 장흥군 득량만어장에서 키조개 자연채묘와 치패의 성장 등을 조사하였다. 환경조사에서는 수온은 법환어장 14.1~24.1℃, 득량만어장 4.7~28.5℃로서 법환어장의 최저수온이 득량만어장에 비해 9.4℃ 높았으며, 최고수온은 4.4℃ 낮게 나타났다. 그외의 8개 항목의 수질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용존 무기질소가 법환어장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키조개의 서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였다. 자연채묘는 키조개의 채묘기당 부착밀도는 1차시험시 4.2개체, 2차시험시에 6.3개체, 3차시험시(득량만) 2.7개체였다. 월별로는 8월에 채묘를 실시한 시험구가 부착밀도 및 성장이 가장 좋았다. 부착한 키조개 치패의 성장은 채묘 6개월 후 평균 각장 42.5mm로 성장하였으며, 부착일수에 따른 각장의 관계식은  $Y = 0.3854x + 0.3854$  ( $r^2 = 0.9764$ )로 나타낼 수 있었다. 수심별 부착밀도 및 성장은 10~21m층이 표층 및 저층에 비해 좋았다. 키조개 치패의 채묘기망목 크기는 1×2mm가 가장 좋았고, 부착기질은 Polyethylene monofilament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